

5년여 만에 4급 공무원 초고속 승진

바이올리니스트 출신 여성 서기관 이은영



글_ 김요셉 대덕넷 기자 joesmy@hellodd.com

“저는 별로 기사거리가 없어요. 여성 우대 정책덕분에 운 좋게 조기 승진한 것뿐입니다.” 과학기술부 최초 여성 서기관에 오른 이은영(34) 씨는 자신이 언론에 비치는 것을 유난히 못 짚어했다. 이 서기관은 승진과 함께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경영혁신팀장으로 발탁됐다.

새로운 업무 현장에서 만난 이 서기관은 처음 만나자마자 기자에게 “나는 기사거리가 별로 될게 없는데...”하며 쑥스러워했다. 하지만 이 서기관의 이력을 보면 기사거리가 철철 넘친다. 그녀에게겐 최근 세 가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바이올리니스트’와 ‘초고속 승진’, 그리고 ‘여성 최초’다.

‘여성 육성 지원 법률’ 제정에 일조

서울대 음대 기악과(89학번) 출신인 이 서기관은 본래 바이올리

니스트였다. 9세 때부터 오로지 바이올린에 인생을 걸었다. 중·고등학교는 바이올린 학습을 위해 서울예원중학교와 서울예고를 거쳤다. 1993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현대음악 분야를 아우르며, 각종 무대와 콘서트홀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공식적인 무대 연주도 수백 차례 경험했다. 한 달에 3~4번씩 공연한 적도 있다.

음악계에서 이처럼 한 가닥 하면서 나름대로 잘나갔지만, 이 서기관의 마음에는 갈수록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다. 일단 공부 욕심이 생겨 행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거의 매일 바이올린을 곁에 두고 살다보니, 공부를 시작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서 공부와 익숙해지는 노력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로 작심을 했다. 고시 관련 책들을 모두 쌓아놓고, 집중적으로 파고든 결과 고시 공부를 시작하지 3년여

만에 합격했다.

이 서기관은 “고시는 엉덩이 싸움 같다”고 정의했다. 머리가 좋아서 합격한 게 아니라 ‘누가 끈기 있게 집중적으로 공부했느냐’가 고시 합격의 승부수라는 것이다.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합격하기 힘든데, 전혀 문외한인 음악도 출신이 행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문이 당시에 화제가 됐다.

이 서기관은 2000년부터 바이올리니스트 생활을 접고 과학기술부 공직생활에 들어갔다.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기 전, 이 서기관은 새로운 제2 인생을 위해 준비했다. 행정 경험이 없는 그는 고시에 합격한 다음, 주경야독의 각오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공무원 고급행정의 적응력을 키웠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서기관은 첫공직 생활을 과기부 문화과에서 시작했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일했던 시기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김영환 과기부 장관 취임 이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해 6개월 만에 기초과학정책과 사무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초과학정책과에서 1년 반 동안 일하면서 이 서기관은 여성육성지원 법률을 만들어 냈다. 이 법률 때문인지 법이 통과된지 수년이 지난 현재 이공계 대학 여성 수가 증가하고, 여성교수 채용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이 서기관은 나름대로 공직생활을 하며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은 여성 과기인을 위해 작지만 한몫 했던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밖에 이 서기관은 남들보다 짧은 기간에 문화과, 기초연구국, 원자력국, 정책홍보관리실 등 여러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업무에 두각을 나타냈다. 결국 남들이 10년 만에 오른다는 서기관 자리를 5년 반 만에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됐다. 과기부내에서 승진을 거듭해 서기관 자리까지 오른 여성은 이 서기관이 처음이다.

끝없는 도전과 자기개발의 연속

이 서기관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고속 승진 비결’ 이란 다. 그 질문에는 여성으로서, 그것도 ‘음악도’ 라는 공직생활과는 매우 동떨어진 전공 출신자로서 승진가도를 달린 비결에 대한 궁금증이 깔려있다. 이 서기관의 답은 “99% 제도 덕분”이라고 겸손해 했다. 정부의 여성 우대 정책으로 인해 운 좋게도 승진했다는 변이다. 그러나 이 서기관의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노력이 성실과 능력이 강조되는 직장에서 초고속 승진하는데 큰 지렛대가 됐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이 서기관은 이제 과학관 인사혁신을 주도하는 팀장 역할을 맡게 됐다. “항상 어느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 서기관의 생활목표란다. 이 서기관의 꿈은 의외로 단순 소박하다. 그는 “하는 일 열심히 하고, 기회가 오면 또 다른 일을 찾아 나설 것”이라며 “어떤 일이든지 과거의 경험을 이용해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ST**

